

연중 제19주일

기도서 410면 (B 해)

제1독서: I 열왕 19, 4-8

제2독서: 에페 4, 30-5, 2

복음: 요한 6, 41-52

# 숲정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  
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  
려 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  
지 않는다”

(요한 6, 48-50)

## 강론

## 소리

### 아빠를 돌려 달라

### 음식과 효험

안 용기 신부 / 시기동 천주교회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천문학적 숫자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효험 또한 그 숫자만 큼이나 다양하리라 여겨진다. 한때 호기심을 자아냈던 토 롱탕이나 혐오감을 유발시켰던 굶벵이나 도롱뇽 알의 채식이 바로 그 음식(?)의 효험때문이 아니었던가

오늘 복음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 온 빵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때문에 유대인들이 웅성거리며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한결음 더 나아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며 그빵은 곧 자신의 살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라는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면서 그 효험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세상도 이 빵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유대인들의 혐오감을 유발시킨 하였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음식인가. 구태여 처녀 총각 오백명을 동원 하여 삼신산에서 불로초를 구하게 했다는 진시황제나 장수를 위해 이슬을 받아먹었다는 한무제, 또 정력강장을 위해 굶벵이를 채식하는 부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누가 이 음식을 마다하겠는가. 유대인들의 혐오감을 자아내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포유생명체는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모체를 먹고 살고 있으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같은 형의 피를 수혈한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빵의 효험이다. 과연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효험을 알아듣기 위해 “바 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가르침)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곧 예수에 대한 전인적 신앙과 행동이 이 빵의 효험과 직결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뇨병 환자에게 설탕을 삼가라든가 간이나 뱀 환자에게 술과 담배를 삼가라는 의사들의 말을 흔히 듣는다. 음식과 그 음식의 효험 그것은 그 음식의 효험을 왜해시키는 상극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때 가능함을 알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이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의 효험은 또하나의 빵으로써 자신을 내어줄때 발효한다. 이때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지난주 우리는 큰 충격을 경험했다. 국가의 대동맥인 철도가 멋어버린 것이다. 철도원들의 총파업은 다행히 며칠만에 정상을 되찾았으나 강압적 자세로 문제를 풀지못한 철도당국, 공무원 신분인 기관사들의 파업결행, 공권력의 무더기 연행등 다시 생각해 하는 양금이 개운치 않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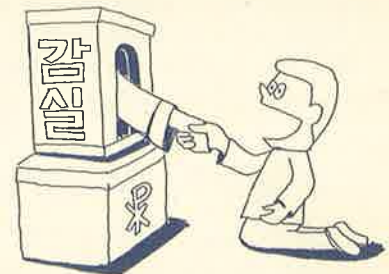
그러나 이 와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한 장면은 기관사 아내들의 인간적인 울부짖음이었다.

남편들이 열흘이 넘게 귀가치 않고 농성에 나선 것을 초조히 지켜보던 아내들은 급기야 자신들도 집을 뛰쳐나와 철도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다. 「남편 얼굴 좀 보고 살자」 「아빠가 자식 볼 시간을 달라」 「직장에 빼앗긴 남편을 돌려달라」-이 같은 생존권적 절규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이웃 같은 국민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잠시의 불편을 불평했다는 것이 너무 사치스런 생각이 아니었나 짚어 볼 일이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듯이 잘못된 노사관계는 하루 속히 바로 잡아 노사가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하물며 기본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는 대목에 이르러서야 어찌 그 아픔을 남의 것이라고 고개를 돌릴 수 있을 것인가.

89년을 자랑하는 한국철도사상 첫 파열 평음을 낸 이번 파업을 교훈 삼아 관계당국과 당사자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가슴을 열고 실질적인 협상을 성공시켜 철도원 아내들에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가 우리 시대의 국민적 합의라면 희망 찬 기적소리를 울릴 수 있지 않은가.....

### 숲정이 산책



성체조배는 예수님께 인사하는것...



### 『성모성년』의 폐막을 앞두고

34년만에(1954년) 다시 이 땅에 성모성년이 교황에 의해 작년 6월7일에 선포되어졌고 금년 8월15일에 폐막이 되어진다.

그동안 교구에서는 성모성년 기도문을 배포하고 지구마다 순례성당을 지정했으며 성년 선포의 의의를 주지해 왔다.

명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일 수는 없듯이 성년의 의의를 산 사람만이 은혜의 성년이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12년만 있으면 대망(?)의 2000년대를 맞는다. 오늘날 세계는 급속한 기술문명의 혜택으로 편리와 풍요를 구가하지만 위기의식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인간의 존엄과 인간성은 말라가고 있다. 단절과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풍량이 거칠지만 안식처인 포구가 없다. 인간들은 저마다 슬프고 두렵고 고독하다. 이기적인 탐욕과 자존심으로 온통 상처 투성이라 일컬어 모성(母

性)의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교황께서는 성모성년을 통해서 구원의 모상인 성모님께로 귀의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칠고(七苦) 중에 끝까지 인내하셨던 신앙과 생활의 지조 내지는 동정성을 본받도록 촉구하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당신 어머니와 제자를 모자(母子) 관계로 세우셨고" 분부대로 "어머니를 모셔 온 교회이다"(요한 19, 27). 이것은 단순한 인정(人情)적인 모심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원한 귀감으로 삼으라는 분부이셨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성모성년은 이제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모성의 회복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처방이다. 은혜의 푸른 계절을 살자. 성모님과 함께!



### 성서와 함께

### 14. 이스라엘의 축제(C) : 초막절

곡식이나 열매의 첫 소출을 바치는 시기는 오순절로 시작하여 초막절로 끝난다. 이스라엘의 3대 순례축일들 중 원래 이 초막절만이 순례축일이었다. 히브리어로 이 축제의 이름은 Sukkoth인데 '나무가지로 만든 안식처'라는 뜻이다.

이 축제 역시 가나안 농경문화에 그 뿌리를 두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마지막 수확날인 포도와 올리브를 거둬들이며 이 축제를 지냈다. 전에 언급했듯이 가나안 주민들은 종교의식의 근본 목적을 여러 신들을 인간의 힘으로 움직여 자연의 혜택을 얻어내는 데에 두었다. 이와 반면 히브리인들은 하느님을, 자연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간섭이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월자로서 인식하였고, 그들의 종교예식을 통해서 이 하느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렸다.

우리에게 뚜렷한 이 구별이 가나안 농경문화의 영향권 내에서 살던 히브리인들에게는 가끔 선명하지 못했다. 특별히 극심한 가뭄이 닥치거나 우박과 메뚜기떼의 습격을 받을 때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재앙들에 대처해 보고픈 생각에서 그들은 야훼 하느님을 떠나 가나안의 풍산신 숭배에 기울어졌다.

본시 농경문화에 기원을 둔 초막제가 언제부터, 무슨 경로를 밟아 유목민의 축제로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후대에 오면서 이 축제는 사막시절의 천막생활, 그리고 그 때 맺었던 새 계약을 기념하는 축제로 탈바꿈한다.

이 축제가 열리는 기간은 티쉬리달(9-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다. 바빌론과 그외 더 먼 지방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물을 들고 순례행진을 해왔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몰려든 순례객들은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로 초막을 짓고 야훼 앞에서 플루트를 걸들인 노래와 춤을 연출하며 축제를 즐겼다.

모든 민족들이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통해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즈가 14, 16이하). 초막절의 종말론적 성격은 신약성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버와 요한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모습을 바꾸신다(마르 9, 2-8; 마태 17, 1-8; 루가 9, 28-36). 그리고 예수께서 종말에 나타나기로 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종말이 닥친 것으로 오해하여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다고 제의한다. 베드로의 제안은 초막절에 부여된 종말론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이스라엘의 모든 축제들은 종교적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본래 가나안 농경문화와 옛 유목문화의 민족제였던 3대 순례축일들은 에집트 탈출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 종교사건을 거치면서 그 사건의 중요한 순간들, 곧 탈출, 시나산에서의 계약, 광야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들로 바뀌었다.

방학특강 모집, 개강 7월 20일부터 수시 접수

### 팔손모아주산수리학원

- 학과 성적 뒤진 학생 ) 책임지도 • 유치부 약간명 모집
- 수리력 · 이해력 부족학생

위치 : 전주시 삼천동 상용APT 1단지 입구 2층 ☎ 82-7070

서 철웅 (비오로) · 김 명옥 (올리앗)

### 좋은 소식

성전건립을 위해 전북 총대리점을 내고 새 우전, 멸치젓, 첫국등 각종 첫갈류를 판매합니다.

연락처 : 전주시 서신동천주교회 박성팔 신부

☎ 4-2214

# 교 구 소 식

축하합니다! - 사제인사이드

은퇴! 권 영균 신부님-38년간의 사목 생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전역! 안 철문 신부님-4년간 고생하였습니다. 부안에서의 새 생활에 기대를 겁니다.

※ 고 이대권신부님 1주기 추도미사: 10일 오전11시 장소-중앙천주교회

1. 사목교서 연수회: 인후동 천주교회-9일 오후8시 덕진천주교회-14일 오후8시
2. 8월 시민강좌 "분단 상황의 인식과 민족통일": 8일 오후8시40분 강사-김낙중교수 장소-전동천주교회 주최-남전주지구 사목협의회
3. M.B.W 그리스도 기초 공동체 코스: 8일(월) 오전10시~10일(수) 오후3시 장소-천호 피정의 집 회비30,000원
4. 전화번호 변경 안내: 김반석신부님 77-1757, 동산천주교회 수녀원 77-4212 중앙천주교회 사제관 77-1713 수녀원 77-1712 사무실 77-1711
5. 8월중 혼인강좌는 없습니다.

※ 축! 영명 성 도미니꼬(8일): 강인찬 신부님

성 라우렌시오(10일): 박진량, 범선배, 전대복, 박기준 신부님 축하합니다.

## 성모성년 폐막 성모마리아 신심을 위한 기도행사 안내

8월 15일 성모성년을 폐막하며 성바로 말 수도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습니다.

8월 9일-행사개막 성체조배 오후 3시~4시 8월 10일~14일까지 성체조배 오후 3시~4시

15일-폐막 성체조배와 성체강박 장소-성바로서원 2층 강당

※ 이 기간동안 성바로서원의 책과 카세트, 비디오등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두레상

##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 독에 맞다면

모내기를 끝낸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논두렁이나 밭이랑을 지나다보면 벼나 채소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하루같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런데 곡식이나 채소와 과일이 자라는 곳에는 농부들에게 반갑지 않은 벌레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약을 뿌려 벌레들을 죽이거나 쫓아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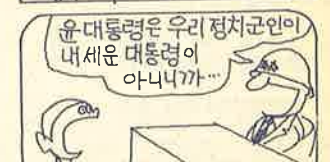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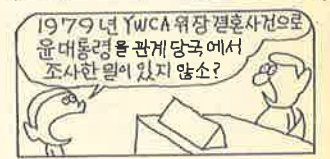
병충해를 막기 위해 뿌리는 농약은 인명을 앓아갈만치 독하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요즘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농약을 먹고 자란 벌레는 농약에 대한 면역성이 생길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독을 즐긴다고 합니다. 어느 농부가 무공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혹시 주변의 벌레들이 모두 몰려들면 어쩌나 걱정하였답니다. 그런데 막상 농사를 짓다보니 벌레들은 오히려 농약을 뿌린 다른 밭으로 옮겨 가더랍니다. 농약에 입맛들인 벌레들은 농약이 묻지 않은 곡식이나 야채는 심심해서 먹지 않고 입에 익은 독맛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도 조미료에 맞들인 입은 자연식품을 그대로 먹기 싫어합니다. 또 담배나 마약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독에 맞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끊지 못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영화, 잡지 등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한 독으로 차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온갖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까지 알려주며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재미에 사람들은 뇌를 잃기가 일수입니다. 그런가하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큰 판한 번 잡아 팔자고쳐보자는 "한탕주의"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매일의 삶이 이런 속에서 이어져 가고, 그 독에 맞들인 우리는 더욱 강한 독을 찾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상인심은 더욱 독해지고 사회는 혼란되어 갑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자연 그대로의 곡식과 과일로 만든 성체와 성혈을 받아 먹습니다. 그 맛은 아무 자극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의 독을 깨끗이 씻읍시다.

## 요십이 (783) 김병오



### □ 1분 명상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 마태오 16, 26 —

### 명동피부과의원

### 사무장 채용공고

1. 자격: 천주교신자, 남자, 군복무면 또는 면제자, 25세이상, 고졸학력자에 한함.
2. 구비서류: 이력서, 교적사본('86-'88수경제명),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3. 제출마감: 1988. 8. 13 04-2276

※ 신부님 추천서 없음. \*문의: 천주교 서화동교회

###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군산안과

부설: 군산콘택트렌즈

원장 이 선구 (루 까) 차 금옥 (이네스)

☎ 42-2171

군산시청 사거리

### 정신과학 세미나

- 주제: 고도의 정신 및 두뇌 활용법
- 효과: 스트레스 해소, 기억법, 집중력, 신앙심화, 등등. 수면조절법,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테크닉
- 일시: 8월 8일(월) 8월 11일(목) 오후 2시, 7시
- 장소: 전주가톨릭센터(대강당)
- 연사: 김중배(말시아노) 박사 ● 참가비: 1,000원

### 신입사원모집

당사는 수출섬유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남자, 여자사원 약2명
- 구비서류: 이력서 1부
- 자격: 고졸이상, 병역필한자 주민등록등본 2부
- 공교졸업 유대 중명사진 1매
- 여성졸업 유대(사격중 첨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주시 금암동 475번지(교보빌딩 뒤 건물 2층)

### 동양섬유

☎ 3-9340

# 정음·김제지구 본당소식

## \*고창

사제관 63-2552 주임신부 **한봉섭**  
사무실 2-2044 사목회장 **이면우**  
수녀원 2-3529

1. 모임: 오늘-사목회 정기상임위원회, 다음주-성모회
  2. 공소 미사: 동해원-오늘 오전8시 성원-다음주일 오후3시
  3. 예비신자 교리: 매주 화요일 저녁8시, 주일낮11시
  4. 중고생 산간학교: 6일~8일 선유사 자연의 집
  5. 성화 상영(파티마의 기적): 13일(토) 저녁8시, 농치저 밍사다.
  6. 성모승천 대축일 행사: 15일(월) ①경축미사-6시, 10시30분 ②친교의 점심식사 ③경축행사-배구, 척사, 줄다리기.
  7. 감사: 중고생 산간학교를 위한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8. 주일학교 방학: 8월 한달, 자녀들이 주일미사에 참여토록!
  9. 꾸르실료 교육: 김광수 형제-수료, 이양금자매-11일부터
  10. 예비자 인도와 정성스런 봉헌으로 성장하는 본당 공동체를!
  11. 금주전례: 해설-송기수 독서와봉헌-이면우 손투에 부부 차주전례: 해설-양영희 독서와봉헌-김진태 이선분 부부
- 지난주봉헌금: 276,680원 □교무금: 155,000원

## \*부안

사제관 83-3435 주임신부 **권영균**  
사무실 2-2232 사목회장 **육진수**  
수·유 2-3226

1. 성모회월례회: 다음공식미사후
  2. 유치원 교사모집: 교우에 한함. 자필이력서1통, 최종학력졸업 증명 및 성적 증명서각1통, 명함판2매 마감8월20일
  3. 첫영성체 교리: 8월8일 13일까지 대상-국민학교 4학년이상
  4. 나주성모님 방문순례신청: 8월11일까지 신청 16일날 방문 회비 4,000원
  5. 영세식: 8월14일(일) 미사후
  6. 공소미사: 7일 등용공소
  7. 종교학생특별교리: 8월8일~8월11일 오후2시30분 공소학생은 본당으로
  8. 성모승천대축일 행사: 미사시간10:30 행사-미사후 영세식 오후2시부터 오락게임 분당및 공소 신자분은 전원참석 바람
  9. 구역회: 8월10일 4.5.6구역
  10. 본당청소: 1.2구역
- 지난주봉헌금: 317,100원 □교무금: 151,000원

## \*수류

사제관 주임신부 **문선구**  
사무실 43-0581 사목회장 **김태섭**  
수녀원

1. 교육관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의 모임: 사목회 상임위원회(교육관 축성식 행사 평가) 성모회
  3. 다음주 모임: 모니카회
  4. 감사합니다: 교육관 신축헌금 상화-이마리아 5만원, 조마리아-1만원, 대천-이계호 100만원, 서울-문양지거 50만원
  5.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15일 6시30분, 10시(두대있음) 10시 미사 시 영세식과 첫 영성체식 있음.
- 교무금: 272,000원 □미수금: 50,000원  
□지난주 봉헌금: 203,450원 □오르간 구입비: 5,000원  
□교육관 신축헌금: 1,565,000원

## \*시기동

사제관 32-3282 주임신부 **안용기**  
사무실 2-2169 사목회장 **신태근**  
수녀원 32-5777

1. 안나회 돈보스코회 매괴회: 공식미사후
  2. 구역장모임: 공식미사후와 저녁미사후 8월달 반교재 수령바람
  3. 다락방 기도모임: 매월2째주 목요일(11일) 저녁미사후
  4. 영세자특별교리: 8일(월) 저녁8시30분부터(통신교리수료자로 참석) 영세식 14일 공식미사중
  5. 성모승천대축일 행사(15일월) ①미사: 새벽6시, 10시30분, 저녁8시30분 ②첫영성체: 15일 오전10시30분 미사중에 ③본당 공소 대관치: 1. 나눔의 시간=중식세공 2. 척사대회=단체전, 개인전
  6. 첫영성체 교리: 4일~13일까지 오전9시~11시.
  7. 남성꾸르실리스타 탄생: 양재철 마르피노 형제
  8. 성당청소: 월=매괴의 모후 토=신비로운 잠미
- 지난주봉헌금: 335,310원 □교무금: 596,100원

## \*신태인

사제관 4-2444 주임신부 **최상범**  
사무실 4-2024 사목회장 **송대영**

1. 변경! ①세례, 첫 영성체: 14일 오전10:30(공식미사) ②견진성자: 15일 10:30 ③매 주일 공식미사: 10:30(다음주부터) ④공소(동막, 능교, 옥단)교리: 8월9일~13일(5시~10시)
2. 영세자 견진자 9일기도(8월7일~13일)
3. 성모성년 폐막식: 8월15일 오전10시

4. 이대권 신부님(본당6대 주임신부)1주기 추도미사: 중앙성당(10일 오전11시)
  5. 성시간 및 철야 기도회: 11일 11:30
  6. 제3회 신태인 천주교회 성령세미나: 8월19일~21일 참가비3,000원(세대당 2인 이상 부터2,000원)
  7. 성화상영: 8월14일 밤10시
  8. 대건회 단합대회: 10일(10시까지 성당집결)
- 지난주봉헌금: 134,000원 □교무금: 30,000원

## \*신봉

사제관 44-2272 주임신부 **이성우**  
사무실 44-2271 사목회장 **정경이**

1. 금주모임: 사목회(공소회합참석), 요셉회, 성모회, 청년회, 학생회
  2. 다음주 모임: 아브라함회(8.12 야외행사진 포함) 자모회
  3. 공소미사: 약용공소(오늘아침 8시) 다음주-신암공소(오후3시)
  4. 성가연습: 매일미사후 성가연습에 많은 참여바람(성모승천대축일 준비)
  5. 첫영성체교리: 8일(월요일) 9시부터 교리가 있어오니 부모님들 많은 협조바람(국교3년이상)
  6. 친교미사: 연기된 친교미사는 오는 10일로 연기되었으나 많은참여 바람.
  7. 감사: 청년회 2박3일 연수회에 협조해주신 형제자매님들께.
  8. 금주봉사전례: 김창용부부, 전례-이재호, 저녁-허정운
- 다음주 봉사 및 전례: 박희대 부부, 전례-김주홍, 저녁-김미숙  
□지난주 헌금: 104,250원 □교무금: 245,400원

## \*연지동

사제관 33-0044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33-0898 사목회장 **허진**  
수녀원 33-2578

1. 오늘의 모임: 대건안드레아회, 율트레아 모임-공식미사후
  2. 다음주 모임: 바로로회·원서회·애령회·성심회
  3. 축! 꾸르실료교육 수료: 김규영(토마스)
  4. 견진교리: 9~12일 시간-저녁미사후 신청-오늘까지 사무실에
  5. 구역모임: 9,10,11,12구역-8일(월) 저녁8:30분 최제노베파씨
  6. 금주청소: 월요일 오전-인자하신 모후Pr, 토요일 오전-천상의 모후 Pr
- 지난주봉헌금: 249,700원 □교무금: 316,000원

## \*요촌

사제관 44-0152 주임신부 **황인규**  
사무실 44-0151 사목회장 **김치덕**  
수녀원 44-0153

1. 오늘의 모임: 구역장, 공소회장, 연석회, 학생회, 워레회
  2. 성모승천반 영세자 특별교리: 9일(화)-12일(금) 저녁8시, 학생회관 통신교리 수료자도 필히 참석바람.
  3. 영세자 면접: 13일(토) 오후8시, 사제관
  4. 유아세례: 15일(성모승천 대축일)공식미사중 예접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람.
  5. 영세식: 성모승천 대축일(15일) 공식미사중
  6. 미사시간 변경: 예비자 특별교리 관계로 저녁미사후 8:30에서 9:00로 9일~12일까지 임시 변경
  7. 감사! 초·중·고 하계 연수회를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대건회60,000원 율트레아150,000원 성모회30,000원 성가정회50,000원 교사회50,000원 김용건20,000원 신세라피나20,000원 박민익 음료수2박스 송현주 음료수 1박스
  8. 이달의 성당청소: 지혜로운 동정녀, 셋빛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98,430원 □교무금: 529,070원

## \*원평

사제관 43-0880 주임신부 **전종복**  
사무실 43-4236 사목회장 **오재천**  
수녀원

1. 사목회·아브라함회: 공식미사후
  2. 성모회: 차주모임
  3. 어린이 여류성경학교 잘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주일학교 방학: 8월 한달 쉽니다.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협조부탁
  5. 영세자 면접: 12일 오후3시
  6. 영세식및 첫영성체: 14일 10시미사중에 있습니다. 영세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자들을 위해서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 레지오 옥외행사: 김옥출(3만원) -15일 무주칠연폭포
  8. 수녀원 신축헌금-김옥출(3만원)
- 지난주봉헌금: 104,060원 □교무금: 10,000원